

兒童이 評價한 父母의 情緒的 兒童虐待에 관한 豫備研究

A Preliminary Study on the Emotional Child Abuse Reported by the Children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시간강사 고 성 혜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

Lecturer; **Seong Hye Ko**

< 목 차 >

- | | |
|------------|-------------|
| I. 問題提起 | IV. 結果 및 解釋 |
| II. 理論的 背景 | V. 結論 및 論議 |
| III. 研究方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recent trends of child abuse which is reported by the children,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and verbal child abuse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The subjects were 196 children in a public elementary school in Seoul (5th grade). They completed an anonymous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ost of the children in the survey reported that their parents didn't abuse them.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child abuse with their mother and father.

2. Emotional and verbal child abuse differed significantly by the level of socio-economic status, child's personality, parent's personality, marital dispute. But child abuse was not related to the sex of children.

I. 問題提起

근래 들어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와 학계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서, 아동 권익 보호소 및 아동방임·학

대 예방위원회등이 설립되어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며, 부모의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방임·냉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예방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철저한 상하관계를 강조하여,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보려는 경향이 높으며,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고 통제하는 것을 당연한 행위로서 용인해 왔던 전통적 한국가족의 특성의 영향으로(신영화, 1986) 자녀양육의 통제를 한 개별 가족의 문제도 국한시키면서 타가족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배타적 태도로 인해 부모의 자녀학대행위가 조장된 면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부모의 兒童虐待行爲는 부모가 어린 시절에 학대당한 경험이 있거나, 자신의 감정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녀의 발달상태를 알지 못해서 발생된다고 보아 왔다(Parke & Collmer, 1975). 최근에는 부모 자신의 個別問題로 보기 보다는 자녀 자신이 부모의 학대 행위를 유발한다고도 보며, 빈곤, 무직등 가족내 위기감을 주는 상황에 놓이거나(Garbarino, 1976), 부부간의 不和로인해 자녀가 희생양이 되어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학대당한다고 보는 등, 그 주변 환경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다(Smith, 1984).

부모로부터 신체적·정서적·심리적 고통을 심하게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며, 성격 특성이 파괴적 반항적이고, 과도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곽영숙, 홍강의, 1987)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는 가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영희, 1984). 이렇듯, 부모의 자녀학대는 개인적으로 자녀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며 사회적으로도 病理現象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兒童虐待에 관한 경험적 연구(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홍강의, 곽영숙, 1987; 김정준, 1986; 김광일, 고복자, 1987)에서는 一般兒童과 家出兒童을 대상으로 父母의 教育水準, 職業, 子女의 性別과 부모의 아동학대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연구대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 부모의 特性 부부간의 갈등과의 관계를 다루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및 범주화 작업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절적인 양육, 즉 학대(Burgess & Conger, 1978)를 일반 아동이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것과 관련된 變

數의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일반아동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을 보고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확대해석할 오류도 있지만 부모가 늘 의도적·지속적으로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거부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녀의 입장에서 불편한 감정이 누적되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 體罰과 구분짓기 힘들고,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만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兒童虐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목적과 부모교육, 아동복지 및 상담 등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에 관한, 척도 수정을 꾀하고, 의미있는 변수를 선택하여 부모, 자녀를 쌍으로 표집하여 부모-자녀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한 예비 연구의 의미도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兒童虐待 개념에 대한 논쟁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문화 한 계층에서는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다른 문화 다른 계층에서는 학대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유춘식, 1987). 따라서 아동학대는 정의 자체가 다양할 수 있고, 모호한 성격을 띠 수 있다. 대체로 아동학대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태만, 행위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Kempe & Helfer, 1980)로 정의하여 의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성이라는 것이 관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대 사례에서 부모가 자녀를 해치고자 한 것이 무의식적인 행위로 보고되었고(신영화, 1986), 또한 비신체적 학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의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 광의적으로 정의하는 두 번째 입장에서는 신체적 학대 외에도 성적 학대, 심리적·정서적 학대를 포함한다.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의 조건과 개인 제도사회의 행위나 태만등을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Gil, 1981). 즉,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와 소극적 방임을 포함하는 것(주영희, 1984)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처리적 개입을 촉구하는데 유용한 협의의 정의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방적 개입을 지지하는 광의의 정의로 구분된다(주영희, 1984).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잠재적인 가해자·학대자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Burgess & Conger, 1978) 아동학대의 근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광범위한 예방적 개입과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광의의 해석을 따르고자 한다.

학대의 하위 영역은 학자마다 다소차이를 보여, Rohner(1986)*는 신체적 방임, 신체적 공격,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 6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Martin과 Walters(1982)는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무관심, 부모로서의 자녀양육 포기 등 5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김미경(1987)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는 이유없는 구타에 해당되는 신체적 학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행위를 강요하는 성적 학대, 거부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거나 언어적 공격을 일삼고 위협적이며 불안한 분위기를 양육하는 정서적 학대 등 3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정서적 학대는

- *신체적 방임—아플 때 돌보지 않거나, 자녀 유기.
- 신체적 공격—심한 구타, 이유없는 구타.
- 정서적 방임—자녀에게 무관심, 일탈행위를 방관, 조장.
- 정서적 학대—언어적, 정서적 공격, 배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행위.
- 교육적 방임—만성적 결석 방치, 학동기 자녀에게 취업 강요.
- 성적 학대

신체적·성적 학대 보다 애매모호하지만, 자녀의 여러 능력에 장애를 가져 오고, 정서적으로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서도(Szur, 1984) 외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情緒的 虐待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적 태도를 보이며, 일탈 행위에 대해 방관 또는 조장하며(Szur, 1984),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말도 자녀를 경멸 모독하며, 책임전가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 비신체적 형태의 敵對的·拒否的 虐待 形態(Steele, 1980)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情緒的 虐待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서적 학대 중 구체적인 폭언을 따로 구성해 잠정적으로 편의상 언어적 학대라 명명하여 함께 다룬다.

2. 兒童虐待를 유발하는 要因

아동학대 원인을 분석하는 주도적 접근법은 Kempe, Helfer등(1980)이 주축을 이루는 정신병리적 모델로써, 학대의 일차적 주요한 원인을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구조상의 결함에 두고 있다. 즉, 강박신경증, 심한 우울증, 불안증,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부모이거나, 알콜 중독이거나 충동적이고 미성숙하며 불안정하고 우울하며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거나(유춘식, 1987)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다고 한다(Green, Gaines & Sandgrund, 1981). 그러나 아동학대 현상을 정신병리적 상태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으로, 사회학습 이론적 설명에서는, 부모가 과거 공격적·폭력적·거부적인 가정내에서 양육된 경우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 학대 경험이 악순환된다(Green et al, 1981 Conger, Burgess & Barrett, 1981)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결혼 가족이거나 부모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부부간에 폭력이 자행되거나 잘 다루는 경우등 가족내 위기감을 가져 오는 상황에 놓일 때,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Brown & Saqi, 1988). 또한 부모가 연이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며,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족, 무지로 인해 잘못 양육하기도 한다

(Gelles & Cornell, 1985). 이러한 경향은 특히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어머니가 자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가정 살림에 대한 부담과 가족간의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고, 아버지 보다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로서 자녀로부터 어머니 자신의 주체성과 자부심에 대해 더 많은 위협과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권은주, 1978 : Gelles & Cornell, 1978). 그러나 신체적 학대의 경우, 부모의 성별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안동현, 홍강의, 1987 : Gelles & Strauss, 1978), 부모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학대 역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자녀가 미숙하였거나 원하지 않은 아이이거나 지진아 또는 신체장애아이거나 자녀의 성격이 충동적이고 안절부절하며 부모의 기대에 못미친 행동을 할 때 발생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Szur, 1988). 이는 앞서 설명과는 달리, 아동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부모의 학대 행위가 유발된다는 시각이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가 학대 대상이 된다는 연구(김광일, 고복자, 1987)도 있고,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신영화, 1986)도 제시되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정서적 학대는 일반 아동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가 없고(황영희, 1984), 가출 아동은 남아보다 여아가 학대 대상이 된다고 제시함으로써 유의한 차가 존재한다(신영화, 1986)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아동학대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 보다 多面的 分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입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언어적 학대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性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언어

적 학대는 아동이 평가한 부모간의 불화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성격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성격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7) 아동이 평가한 아버지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아버지의 잦은 음주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8) 아동이 평가한 아버지의 정서적·언어적 학대와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차이가 있는가?

III. 研究方法

1. 調査對象 및 資料蒐集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외형적으로 정상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국민학교 5학년생이다. 저학년생이 응답해내기에는 조사도구의 문항수가 많고, 조사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가족 배경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되었고, 6학년의 경우, 사춘기에 진입하는 아동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되어 부모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4, 5학년생 중 의도적으로 5학년생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본 조사 이전에 1989년 5월 17일 부터 20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보완·수정했으며, 1989년 5월 25일 부터 6월 5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상류층 지역에서 1학급, 하류층 지역에서 1학급, 중하류층 지역에서 1학급, 중류층 지역에서 2학급 등 4개 학교 5학급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22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225부중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한 총 196부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調査道具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개인의 가족배경에 관한 14문항, 아버지·어머니의 성격 및 생활에 대한 7문항, 아버지·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에 관한 각 23문

항(방임 9문항, 학대 14문항)언어적 학대에 관한 각 13문항, 조사대상에 대한 어머니·아버지의 평가를 묻는 10문항 등 총 10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은 신영화(1986) 황영희(1984) Rohner(1986)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기초로 구성한 것으로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공자 3인으로 부터 검증을 받았다.

학대에 관한 각 문항은 늘 학대하는 경우 5점, 학대하는 편인 경우 4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3점, 학대하지 않는 편인 경우 2점, 전혀 학대하지 않는 경우 1점의 점수를 주었다.

자료수집 후, 문항간의 상관계수와 평균을 산출한 결과, 상관관계도 낮으면서 통계적으로 의미없게 나온 정서적 학대에 관한 3문항을 제외하여 각 20문항씩을 정서적 학대의 내용으로 분석에 사용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의 경우, 총 20점부터 100점까지의 분포를 갖고, 언어적 학대는 총 13점부터 65점까지의 분포를 갖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들은 부모의 자녀 학대 경향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資料分析方法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 학대를 다루고 있는 만큼, 연구문제의 결과는 정상분포를 이룰 것으로 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결과도 편포되어 있어서 모수적 통계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비모수적 방법의 하나인 chi-square 검증을 시도하였다. 먼저 개별 문항별로 chi-square 검증을 해보았으나, 일반 아동 중 부모의 학대를 보고한 사례 수가 적어 각 기대치가 5미만의 사례를 보인 교차분석표가 많았기에 정서적 학대에 관한 문항을 합산하고, 언어적 학대에 관한 문항을 합산하여 각각 빈도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사한 후 범주화 작업*을 통해 chi-square 검증을 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배경 및 부모의 자녀 학대에 관한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적률상관계수를 구했으며, 자료처리에는 spss pc*를 이용했다.

IV. 結果 및 解釋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조사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101명(51.5%) 여아 95명(48.5%)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족의 평균 가구원 수는 4.8인이고, 가족형태는 핵가족 79.6%, 확대가족 20.4%이며 주거 상태는 월세 17.3%, 전세 24.0%, 자택 58.7%에 이른다. 조사대상의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3.0세이고 40대가 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01세이며, 30대가 62.2%를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28.9%, 고졸이 31.4%, 대졸이 39.7%이며, 어머니의 경우는 중졸 이하가 38.9% 고졸이 42.0%, 대졸이 19.2%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 관리직이 20.2% 사무직 34.7%, 상업, 서비스직 30.1%, 농업 가내공업, 생산직이 11.9%, 무직 3.1%이며 어머니의 경우, 취업주부는 36.2%에 이르며, 전문직(3.1%) 사무직 종사자(6.1%) 비율보다 남편과 가게를 같이 운영한 다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생산직, 상업, 서비스직 종사자(27.1%)가 거의 3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는 21.4%, 부부간의 폭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8%로 나타났고, 자주 싸운다고 응답한 경우는 29.6%로 나타났다.

2. 父母의 情緒的·言語的 虐待의 一般의 傾向

일반 아동들이 보고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에 관한 전반적 경향은, 어머니의 경우 평균 41.56점, 아버지의 경우 36.33점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해 거의 학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에 관한 개별 문항별 평가를 살펴보면, 20문항 중 15문항에서 10% 이상의 응답자는 어머니가 학대하는 편이라고 평가했고, 20문항 중 8문항에서 10% 이상의 응답자는 아버지가 학대하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부모의 자녀학대에 관한 빈도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를 결코 작은 수치로 간과할 수 없다.

*IV장 참조

특히 부모의 학대에 대해 아동들의 반응 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기분내키는대로 말을 한다거나, 자녀와의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하며, 위협적인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신다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구체적인 언어적 학대에 있어서 아버지는 평균 18.08점, 어머니는 평균 22.90점으로 부모 모두 자녀에 대해 거의 학대하지 않는 편이다. 아동이 잘못 했을 때 부모로부터 자주 듣는다고 보고한 문항간 빈도에 의하면, 아버지는 1.0~11.2%이며, 어머니는 5.6~18.4%의 범위를 갖는다. 또한 아동이 잘못 했을 때 부모로부터 가끔 듣는다는 사례까지 포함시키면, 언어적 학대는 아버지의 경우 2.0~22.4%, 어머니의 경우 12.8~35.2%로 나타나 적지 않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로 많이 듣는다고 지적한 것들은 원수덩어리, 바보, 병신, 죽일 놈 등의 경멸적인 말, 학교 그만두고 놀러나 다녀라, 집안 일이나 해라 등의 비아냥거리는 말, 너같은 것 죽어도 괜찮다 등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말들로 나타났으며, 때려 죽여버리겠다라는 위협적인 말의 경우 앞서의 빈도보다 적지만 11.8~15.8% 정도 가끔, 자주 듣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아동 주변의 언어적 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대로 방치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상, 빈도 결과를 살펴볼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폭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차이의 유의미성 여부는 다음 절에서 분석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다음 절로 미루기로 한다.

3. 關聯 變數에 따른 父母의 情緒的· 言語的 處待*

(1) 兒童의 性別과 父母의 兒童處待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아동학대는 연구마다

*부모 학대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분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므로, 비모수적 방법을 적용한다고 이미 앞서 밝힌 바 있다. 각 중속 변수의 값을 합산하여 기대되는 평균값(60점)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려는 시도를 해보았고, 실제로 수집된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 ± 1 표준편차의 범주를 기준으로 세 집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분석을 시도했으나,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영화(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남아존중 사상이 아직 잔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개발연구소, 1984) 남아보다 여아가 심리적으로 더 소원한 대우를 받으리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못했다.

(2) 社會經濟的 地位**와 父母의 兒童處待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학대 및 언어적 학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1$).

Junewicz(1983)는 정서적 학대 및 방치가 사회경

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각 칸의 개대수치가 5미만으로 나오는 분석표가 많아, 여기에서는 평균 ± 0.5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구분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에 관한 집단 구분은 41.56 ± 7.13 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언어적 학대는 22.90 ± 7.13 점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는 36.33 ± 6.18 점을 기준으로 하고, 언어적 학대는 18.08 ± 3.86 점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평균 $+0.5$ 표준편차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집단이라 해서 학대하는 집단으로 볼 수 없음을 밝힌다. 단지, 학대 점수가 세 집단 중 가장 높다는 의미로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응답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월평균 가계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아버지의 교육 수준, 직업과 주거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였다. 교육 정도는 무학 1점, 국졸 2점, 중졸 3점, 고졸 4점, 대졸 이상 5점의 점수를 주었다. 직업수준은 홍두승(1983)의 직업별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를 참고로 하여, 무직 1점, 가내공업, 단순 노동직 행상 청소원 등 2점, 자영 상인 및 운전 기사, 미용사, 이발사 등 3점, 일반회사, 은행, 관공서의 사무직 4점, 전문직, 관리직 5점을 주었다. 주거 상태는 월세 1점, 전세 2점, 자택 3점을 주었다.

이 세 지표를 합산한 사회 경제적 지위는 최저 3점에서 최고 13점까지의 점수 비율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평균은 9.832점이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의 수준은 3점에서 8점까지는 하, 9점에서 11점까지는 중, 12, 13점은 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계층 구분은 표본의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에 준해 분류한 것으로, 전국 표본의 상·중·하 계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상층이 62명(31.6%) 중층이 79명(40.3%) 하층이 39명(28.1%)이었다.

<표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MA) (N=189)

MA \ SES	하	중	상
낮은 집단	5	29	39
중간 집단	12	34	17
높은 집단	34	16	3

$x^2=66.56972^{***}$
 (***) $p < .001$

<표 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MV) (N=193)

MV \ SES	하	중	상
낮은 집단	11	36	32
중간 집단	16	34	23
높은 집단	25	9	7

$x^2=32.49831^{***}$
 (***) $p < .001$

<표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FA) (N=189)

FA \ SES	하	중	상
낮은 집단	8	38	34
중간 집단	13	25	23
높은 집단	30	16	2

$x^2=56.64078^{***}$
 (***) $p < .001$

<표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적 학대(FV) (N=193)

FV \ SES	하	중	상
낮은 집단	18	51	46
중간 집단	12	21	12
높은 집단	22	7	4

$x^2=35.34213^{***}$
 (***) $p < .001$

계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Martin(1982)은 2년간 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대 아동의 61%가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빈곤, 무직 등의 상태에서 부모가 압박감으로 인해 아동에게 학대를 한다는 연구경향(Brown & Saqi, 1988; 권은주, 1976)이 보다 지배적인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후자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3) 父母間의 不和*와 父母의 兒童虐待

兒童이 평가한 부모간의 불화 정도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이는 부부간에 폭력이 자행되거나 잘 다루고 갈등이 심한 경우, 자녀가 희생양이 되어 학대당할 가능

<표 5> 부모간의 불화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MA) (N=192)

MA \ 불화정도	높음	중간	낮음
낮은 집단	2	18	54
중간 집단	6	21	37
높은 집단	25	8	21

$x^2=48.02574^{***}$
 (***) $p < .001$

<표 6> 부모간의 불화정도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FA) (N=192)

FA \ 불화정도	높음	중간	낮음
낮은 집단	2	20	59
중간 집단	6	18	37
높은 집단	25	9	16

$x^2=53.85962^{***}$
 (***) $p < .001$

*부모간의 불화유무, 폭력유무, 잦은 다툼의 유무를 물어, 그런편인 경우 1점 아닌편인 경우 2점으로 하여 총 3점에서 6점의 분포를 갖는데 이 중 3~4점은 불화가 있는 편이고, 5점은 보통 정도이며, 6점은 불화가 없는 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불화가 있는 편인 경우는 34가족(17.3%)이 되고, 보통 정도는 49가족(25.0%), 불화가 없는 편인 가족은 113가족(57.7%)이다.

성이 높다는 연구결과(Szur, 1988; Brown & Saqi, 1988)와 일치된다. 부부간의 적응실패로 인한 상황

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 가족내 공격성의 목표물이 나약한 자녀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7> 부모간의 불화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MV) (N=196)

MV	불화정도		
	높음	중간	낮음
낮은 집단	4	15	61
중간 집단	8	29	37
높은 집단	22	5	15

$$x^2 = 57.71750^{***}$$

(***p < .001)

<표 8> 부모간의 불화정도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적 학대(FV) (N=196)

FV	불화정도		
	높음	중간	낮음
낮은 집단	7	28	82
중간 집단	5	15	25
높은 집단	22	6	6

$$x^2 = 66.32752^{***}$$

(***p < .001)

<표 9> 아동의 성격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MA) (N=192)

MA	아동성격	
	못된 성격인편	못된 성격이 아닌편
낮은 집단	17	57
중간 집단	27	37
높은 집단	31	23

$$x^2 = 15.944479^{***}$$

(***p < .001)

<표 10> 아동의 성격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FA) (N=192)

FA	아동성격	
	못된 성격인편	못된 성격이 아닌편
낮은 집단	7	74
중간 집단	13	48
높은 집단	25	25

$$x^2 = 29.69491^{***}$$

(***p < .001)

<표 11> 아동의 성격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MV) (N=192)

MV	아동성격	
	못된 성격인편	못된 성격이 아닌편
낮은 집단	25	55
중간 집단	28	46
높은 집단	23	19

$$x^2 = 6.45719^*$$

(*p < .05)

<표 12> 아동의 성격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적 학대(FV) (N=192)

FV	아동성격	
	못된 성격인편	못된 성격이 아닌편
낮은 집단	19	98
중간 집단	8	37
높은 집단	19	15

$$x^2 = 24.0421^{***}$$

(***p < .001)

(4) 兒童의 성격과 父母의 兒童虐待

아동의 성격적 특성이 부모의 학대를 자극한다는 이론적 입장을 탐색하기 위해 조사한 바, 자녀의 급한 성격에 따른 부모의 학대에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으나, 자녀의 성격이 못되었다고 부모가 평가함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각각 유의한 차를 보인다. 본 자료에서 분석되는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계수는 $r = .15$ 미만으로 미소한 관계를 보이는 만큼, 잠정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관계 규명을 위해서, 아동의 인성검사를 통한 두 변수간의 관계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5) 父母의 성격과 父母의 兒童虐待

부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유발된다고 보는 정신병리적 측면의 일부로서, 부모의 성격이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가 신경질적인가, 불안해 하는가 등을 조사해서 chi-square 검증을 했다. 신경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부모의 학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불안한 성격 특성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본 자료

<표 13>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MA) (N=192)

MA \ 불안도	높음	낮음
낮은 집단	7	67
중간 집단	14	50
높은 집단	20	34

$x^2 = 14.15290^{***}$
 (***) $p < .001$

<표 14> 아버지의 성격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FA) (N=192)

FA \ 불안도	높음	낮음
낮은 집단	3	78
중간 집단	8	53
높은 집단	15	35

$x^2 = 18.27363^{***}$
 (***) $p < .001$

<표 15>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MV) (N=196)

MV \ 불안도	높음	낮음
낮은 집단	10	70
중간 집단	17	57
높은 집단	17	25

$x^2 = 12.40023^{**}$
 (***) $p < .01$

<표 16> 아버지의 성격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적 학대(FV) (N=196)

FV \ 불안도	높음	낮음
낮은 집단	9	108
중간 집단	7	38
높은 집단	10	24

$x^2 = 11.06757^{**}$
 (***) $p < .001$

에서 분석되는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계수는 $r = .16$ 미만으로 미소한 상관을 보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모의 성격 특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두 변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6) 아버지의 잦은 음주경험과 아버지의 兒童虐待

학대 아동의 아버지의 경우, 알콜을 상습,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결과를 토대로 조사해 본 바, 아버지의 잦은 음주 경험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춘식(1988)과 Martin & Walters(1982)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그러나 Gelles(1974)과 Strauss(1980) 등은 음주가 아동 학대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 용인되는 변명 사유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의 규명이 요청된다.

<표 17> 아버지의 잦은 음주경험에 따른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FA) (N=192)

FV \ 잦은음주	유	무
낮은 집단	11	70
중간 집단	17	44
높은 집단	27	23

$x^2 = 24.73740^{***}$
 (***) $p < .001$

<표 18> 아버지의 잦은 음주경험에 따른 아버지의 언어적 학대(FV) (N=196)

Fv \ 잦은음주	유	무
낮은 집단	24	93
중간 집단	13	32
높은 집단	20	14

$x^2 = 18.74887^{***}$
 (***) $p < .001$

(7) 아버지의 兒童虐待와 어머니의 兒童虐待*

앞서의 빈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학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차이의

*앞서 아버지·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어머니·아버지의 집단 구분점을 동일하게 어머니의 점수 기준에 준함을 밝힌다.

<표 19>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간의 차이 (N=191)

MA	FA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낮은 집단	66	7
중간 집단	28	13	3	
높은 집단	13	16	44	

$$\chi^2 = 98.90977^{***}$$

(***p < .001)

<표 20>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와 아버지의 언어적 학대간의 차이 (N=196)

MV	FV	낮은 집단 중간 집단 높은 집단		
		낮은 집단	76	3
중간 집단	51	22	1	
높은 집단	9	11	22	

$$\chi^2 = 107.71861^{***}$$

(***p < .001)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한 결과, 의미있는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의한 자녀학대 경우가 많은데 반해(홍강의 안동현, 1987) 정서적·언어적 학대의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불안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성별에 따른 면이라기 보다,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고,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무관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자녀로부터 어머니 자신의 주체성과 자부심에 대해 더 많은 위협과 방해를 받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가정살림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자녀를 학대한다(권은주, 1976; Gelles & Cornell, 1985)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평균과 백분율, chi-square 검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자녀양육의 다

른 차원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양육을 잘 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V. 結 論

본 연구는 일반 아동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학대 경험과의 관련 변수 탐색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다고 볼 수 없지만, 개별 문항별 빈도를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해 버릴 수 없는 현상으로 주목된다.

둘째,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보다 많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에게 폭언을 하고, 학대하고 있다.

셋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넷째,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하층인 경우, 부부간의 불화 정도가 높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 하층 문화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이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부모의 정서적·언어적 학대는 아동과, 부모의 성격적 특징과 아버지의 잦은 음주 경험에 따라 다르다. 이는 아동학대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시사한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를 조사함에 있어서 정상분포를 이룰 것으로 가정하지 않았지만, 학대 반응을 보인 사례 수가 적어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했고, 독립 변수를 구성하는 문항이 적어, 분석 결과를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 아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학대 경향을 구분해서 밝히고, 관련 변수의 탐색 작업을 시도함에 의의가 있으며, 부모 교육 및 아동 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대상으로부터 합의를 부모의 정서적 학대개념을

*표 20의 경우, 기대치가 5미만인 칸이 하나 발견되었으나, 하나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 없으므로(홍우승, 1987) 그대로 제시함.

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尺度를 보완하거나, 거트만 척도로 변용시키는 작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와 아동의 발달적 장애와의 관계 규명 및 부부간의 학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광영숙, 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제 6 집, 1987:37~52.
2. 권은주,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 신체적학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8.
3. 김광일, 고복자, “한국에서의 아동구타발생율, 정신건강연구, 제 6 집, 1987:66~81.
4. 김미경,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복지, 1987:37~72.
5. 김정준,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6. 신영화, “한국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7. 안광현, 홍강의,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현황”, 정신건강연구, 제 6 집, 1987:53~65.
8. 유춘식, “아동권익 보호신고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현황”, 아동복지, 1987:7~36.
9. 주영희,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연구”, 사회복지, 80, 1984:71~133.
10. 한국갓넵연구소편,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1984.
11. 황영희, “부모의 결혼 만족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2.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3호, 1983:69~87.
13. _____,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1987.
14. Brown, K. & Saqi, S., “Parent-Child Interaction in Abusing Families: its possible causes and consequences.” In P. Maher (ed.), *Child Abuse*, Oxford: Basil Blackwell, 1988:77~103.
15. Burgess, R.L. & Conger, R.D., “Family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ful,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49, 1978:1163~1173.
16. Conger, R. D., Burgess, R.L., & Barrett, C., “Child Abuse Related to Life Change and Peneptions of Illness: Some Preliminary Findings,” In J.V. Cook & R.T. Bowles (eds.), *Child Abuse*, Toronto: Butterworth & Co. 1981:

- 255~262.
17. Garbarino, J., “A Preliminary study of Some Ecological Correlates of Child Abuse: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ress on Mothers,” *Child Development*, 47, 1976 : 178~185.
18. Gelles, R.J.,& Cornell, C. P.,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85.
19. Gelles, R.J.,& Straus, M.A.,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I.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549~581.
20. Gil, D.G., “Unraveling Child Abuse,” In J.V. Cook & R.T. Bowles (eds.), *Child Abuse*, Toronto: Butterworth & Co., 1981:119~128.
21. Green, A.H., Gaines, R.W., & Sandgrund, A., “Child Abuse: Pathological Syndrome of Family Interaction,” In, J.V. Cook & R.T. Bowles (eds.), *Child Abuse*, Toronto: Butterworth & Co., 1981: 271~280.
22. Harbin, H., & Madden, M., “Battered Parents: A New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979:1288~1291.
23. Kempe, C.H.,& Helfer, R.E. (eds.), *The Battered Child*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4. Martin, M.J., & Walters, J., “Familial correlates of selected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2), 1982: 267~276.
25. Parke, R.D.,& Collmer, C.W., “Child Abuse: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In E.M. Hetherington, J.W. Hagen, R. Kron, A.H. Stei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509~590.
26. Rohner, R.P.,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86.
27. Smith, S.L.,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In the Etiology of Child Abuse, *Social Casework*, 1984:337~346.
28. Steele, B., “Psychodynamic factors in Child Abuse” In C.H. Kempe & R.F. Helfer (eds.), *The Battered Child*, 3rd ed., 1980:49~87.
29. Szur, R.,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P. Maher (ed.), *Child Abuse*, Oxford: Basil Blackwoell, 1988:104~126.